

EU, DDA에 새로운 제안

도하개발아젠다(DDA)에서 진행 중인 WTO 협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EU 무역담당집행위원 파스칼 라미(Pascal Lamy)와 농업담당집행위원 프란츠 피슐러(Franz Fischler)는 WTO 협상 국가들에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은 EU가 세 가지 핵심 사안에 대해서 보다 진전된 논의를 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 가지 핵심 사안은 다음과 같다.

- (1) 다른 국가들이 상응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농업에 대한 균형 잡힌 포괄적 거래(balanced overall package)가 가능하다면, EU는 모든 수출 보조 항목에 대해 논의할 의향이 있다.
- (2) 싱가포르 이슈(Singapore issues)에 대한 신축적인 입장
- (3) WTO 회원국 중 최빈개도국(특히 G-90)에 대한 양보

EU는 다른 WTO 회원국에도 이 정도 수준의 양보를 하여, 6월 DDA에서 아직 합의에 다다르지 못한 사안의 세부원칙(modalities)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내고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자고 촉구했다.

파스칼 라미는 “DDA는 EU 무역정책의 핵심 사항이다. 오늘의 결정을 통해서 EU는 2004년까지 라운드에서 이루어지는 논의의 50%를 완료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보였다. 하지만 EU만 노력한다면 아무 것도 이루기 어려울 것이다. 선진국과 개도국을 망라한 모든 WTO 회원국이 다 같이 모호한 정치적 사안들을 구체적인 실행안으로 옮길 수 있도록 노력

해야 6월에 세부 원칙에 대한 동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프란츠 피슬러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EU는 대담하게 솔선수범함으로써 DDA에서의 약속이 허언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DDA의 성공을 위해서는 농업부문이 핵심 관건이기에 EU는 신축성 있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시장접근, 국내보조, 비교역적 관심사항(NTCs), 수출에 있어서의 엄격한 균형 유지에 대한 적절한 조건이 제시된다면, EU는 수출보조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다시 말해 우리의 협상 상대인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역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출보조(수출신용보조, 식량원조의 오용, 국영무역기업 등)를 EU에 제시한 형태에 부합하게끔 전환할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해야 한다.”

1. 수출보조에 대한 논쟁필요

모든 WTO 회원국들이 세 가지 핵심 주제(수출 보조, 국내 보조, 시장 접근)에 대해서 움직임을 보여야 농업부문에서 균형 잡힌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분명한 점은 모든 형태의 수출 보조를 철폐하는 목적에 대해서 대부분의 참가국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EU는 칸쿤 회의 이전부터 개발국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련의 품목에 대한 수출 보조를 철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어서 사전적인 배제(priori exclusions)가 없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런 점에서 EU는 모든 수출 보조 수단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EU는 시장접근과 국내보조와 비교역적 기능에 대해서 수긍할만한 결과가 나오고, EU가 수출 보조에 대해 취한 입장이 다른 나라

에도 대등하게 적용된다면 수출 보조에 대해 한 걸음 더 나간 입장을 보여 주기로 결정한 것이다.

최근의 농업정책 개혁에서도 볼 수 있듯이, EU는 국내 보조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EU는 무역을 왜곡할 소지가 있는 (trade-distorting) 보조금의 매우 실질적인 삭감 조치, 선진국에게 보조의 여지를 남겨주는 최소허용보조(de-minimis)의 폐지, 범주(boxes)내·범주간 이전 보조를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의 제정, 투명성의 확보를 제안한 바 있다. 또한 EU는 시장을 왜곡하지 않는 그린 박스 조항은 제한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장접근에 관련해서, EU는 관세를 크게 인하함과 동시에 EU와 개발도상국의 민감성을 반영할 수 있는 탄력성과 균형을 제공하는 방식이 있어야 농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가 가능하리라 본다.

EU는 많은 개도국의 주요 품목인 면화에 대해 이미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EU는 모든 형태의 수출 보조를 철폐하고 자유로운 시장 접근을 허용하며 시장 왜곡적인 국내 보조를 최대한 줄이거나 철폐할 것을 제안했다. EU의 최근 개혁은 이러한 입장을 확연하게 대변하고 있다.

2. 싱가포르 이슈에 대한 보다 간명한 접근

EU는 각각의 싱가포르 이슈가 논의할 가치가 있을 경우 논의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도하 라운드에서 교섭을 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조항에 대해서만 입장을 견지하겠다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이는 무역 활성화에 관련된 논의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투자와 경쟁에 관해서 협상을 시작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정부 조달 분야의 투명성 확보에 대한 전망은

아직 불투명하지만 이유는 합의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

3. 최빈개도국(G-90)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

EU는 최저개발국가와 WTO 회원국 중 최빈국(특히 G-90)을 위한 특별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시장의 추가적인 개방을 요구해서는 안 되고 선진국과 부유한 개도국 시장에 대한 농산물, 공산물 판로를 확대해 줌으로써 이득을 줘야 한다는 것이 EU의 입장이다. EU의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이들 국가의 취약한 경제는 다른 시장에서의 접근성 개선을 통해서 이득을 볼 수 있다. 여기에는 부유한 개도국 국가의 시장도 포함이 되는데, 이는 G-90 국가들이 몇몇 선진국(특히 EU)에서 이미 누리고 있던 우선권(preferences)을 잠식당하는데 대한 보상의 의미도 있다.

파스칼 라미와 프란츠 피슬러가 보낸 서한은 이러한 세 가지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 외에도, 일부 예외를 포함하는 일반적이고 간명한 방식으로 통한 공산물 무역 관세의 실질적 인하를 촉구하고, 다른 WTO 회원국에게 현재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고자 하는 EU의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EU는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다른 WTO 회원국들이 새로운 제안과 유연한 태도를 통해서, 2003년 9월 칸쿠회의에서 달성하고자 했던 세부원칙에 대한 합의를 2004년 6월까지 이루기를 원하고 있다.

출처: EU 보도자료 데이터베이스
(유찬희 rule-des@orgio.net 019-251-8793 지역아카데미)